

沈自晉 《望湖亭記》 研究

金聖敏*

◁ 목 차 ▷

- | | |
|-----------|-------------|
| I. 序言 | III. 作劇技巧研究 |
| II. 內容研究 | 1. 結構 |
| 1. 梗概 | 2. 音律 |
| 2. 主題 | 3. 文辭 |
| 3. 出典 | IV. 結語 |
| 4. 劇中主要人物 | |

I. 序言

《望湖亭記》의 작자 沈自晉(1583~1665)은 江蘇 吳江 사람으로 字는 伯明, 晚字는 長康, 自號는 西來이며, 曲을 아주 좋아하여 만년에 自號를 鞠通으로 바꾸었다. 1) 그는 明 萬曆間에 湯顯祖의 臨川派와 대치하여 戲曲界를 풍미하던 吳江派의 領袖인 沈璟의 族姪로서 曲 創作 및 曲譜의 整理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가 창작한 희곡 작품으로는 《翠屏山》·《望湖亭記》·《香英會》 傳奇 3종이 있으며, 2) 그리고 沈璟의 《南九宮十三調曲譜》³⁾를 修訂 補充하여 《重輯南九宮十三調曲譜》⁴⁾를 편찬하였다. 그 외 散曲輯으로는 《賭墅餘音》·《黍離續奏》·《越溪新詠》·

* 서경대학교 中文科 助教授

- 1) 沈自晉의 生涯에 관해 자세한 것은 凌景埏 〈鞠通先生年譜及其著述〉(鄭養校點, 《紅藥記傳奇·南詞韻選》合刊本 附錄, 北海出版公司, 1971), 周紹良 〈吳江沈氏世家〉(《文學遺產增刊》12輯, 中華書局, 1963, 48-59 쪽), 趙景深 〈明末曲家沈自晉〉(《明清曲談》, 古典文學出版社, 1957, 106-114 쪽)을 참조할 것.
- 2) 高奕 《新傳奇品》에서 이들을 沈璟의 작품이라고 잘못 記錄한 이래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戲曲 著錄들이 이 착오를 연용 하였다. 拙論文 《吳江三沈戲曲之研究》(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研究所, 1990) 93-97 쪽 참조.
- 3) 或은 《增訂南九宮曲譜》·《南曲全譜》·《南詞全譜》·《南九宮譜》라고 한다.
- 4) 或은 《重訂南九宮詞譜》·《南詞新譜》·《廣輯詞隱先生南九宮十三調詞譜》라고도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것은 北京市中國書店에서 1985년 출판한 《南詞新譜》로 이하 이 명칭으로 통일한다.

《不殊堂近草》 4종이 있는데 《鞠通樂府》라 總稱하며 그중 《賭墅餘音》은 失傳되었다.

《望湖亭記》는 《翠屏山》과 함께 그의 초기 작품에 속하며, 정확한 창작 연대는 알 수 없지만 邢彪佳가 崇禎 6年(1633)에 이 극을 보았다는 기록을 보면 그 이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 본 작품의 현존하는 판본은 莊一拂에 의하면⁶⁾ 玉夏齋傳奇本 하나로 《古本戲曲叢刊二集》 및 《全明傳奇》 역시 이를 影印하여 수록하였다. 玉夏齋傳奇는 22卷 20冊으로 모두 10種의 전기를 수록하였는데, 張棣華에 의하면⁷⁾ 편찬한 사람의 이름은 없고, 淸初에 간행된 판본이다. 《望湖亭記》는 그중 第 4種으로 2卷 2冊으로 되어 있고, 卷首에 上·下卷 目錄 및 挿圖 6幅이 있다. 모두 上卷 18齣 44張, 下卷 17齣 44張으로(목록 역시 上卷 18齣, 下卷 17齣으로 되어 있음) 第 24齣이 없어 第 36齣으로 끝을 맺는다. 《南詞新譜》에 본 극의 曲文 8수를 수록했는데,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같지만 【步步入江水】 한 수는 현존 판본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醉怡情》에도 5齣이 수록되어 있으며, 賓白과 角色名이 조금 차이가 난다. 현존 판본에는 오자와 탈자,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적지 않으며, 사용한 角色名은 그 잘못된 정도가 더욱 심하다. 하지만 현재로 볼 수 있는 판본은 이것 뿐이라 본 연구는 天一出版社 《全明傳奇》에 수록된 玉夏齋本 影印本을 갖고 진행하는데, 內容 研究와 作劇 技巧 研究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 극을 분석하여 그 희곡 문학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부언할 것은 그의 전기 작품 중 《翠屏山》은 불완전한 필사본만 전하고 있고, 《耆英會》는 다섯 수의 曲만 전하고 있어서 그래도 본 판본이 그 중에서 제일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沈自晉의 작품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I. 內容 研究

1. 梗概

- 5) 齊森華 等 主編 《中國曲學大辭典》(浙江古籍出版社, 1997) 407쪽. 趙景深은 前稿論文 111 쪽에서 본 작품이 대략 50세 이전 작품이고, 그의 처녀작일 것이라고 하였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이 참고로 적어둔다.
- 6) 莊一拂 《古典戲曲存目彙考》(上海古籍出版社, 1982) 873-874 쪽.
- 7) 張棣華 《善本劇曲經眼錄》(文史哲出版社, 1976) 276-278 쪽.

淞城 사람 錢萬選은 字가 子靑이고 나이는 18세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 玄眞觀에 머물며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元묘에 文昌帝君이 이곳을 지나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는 그를 도와 공명을 이루어 주려고 생각한다. 淞城 縣令 管六飛 역시 그의 재주를 사랑하여, 그를 외사촌형인 顏秀 집에 가정 교사로 추천하여 그의 생활을 도와준다. 顏秀는 나이 20으로 집은 望湖亭 북쪽에 있으며, 집안은 부유하지만 독서하기를 싫어하고 단지 미녀와 결혼할 생각만 하는데, 그러나 용모가 추해서 늘 이 일로 고뇌한다. 이웃에 尤少梅란 사람이 있어 顏秀에게 돈을 빌려 장사를 하다가, 하루는 돈을 갚으러 오자 顏秀는 그에게 중매를 부탁한다. 4월 7일 尤少梅는 顏秀에게 洞庭山으로 놀러가자고 하고 顏秀는 또 錢萬選에게 같이 가자고 한다.

洞庭西山 사람 高贊은 재산이 많으며 白英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녀의 才貌가 뛰어나 늘 많은 중매쟁이들이 와서 중매를 서자, 高贊은 자신이 직접 사위감을 보고 마음에 들어야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조건을 내세운다. 4월 초파일 高白英은 몸종 翠兒와 妙香菴에 향을 올리러 갔는데, 그때 역시 이곳에 놀러온 顏秀가 그녀의 미모를 보고 반하여 尤少梅에게 중매를 부탁한다. 尤少梅는 그녀가 高贊의 딸이라는 것을 듣고 원래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顏秀가 돈으로 유혹하자 顏小乙과 같이 고씨 집에 가서 중매를 서는데, 高贊은 먼저 사위가 될 사람을 직접 보아야겠다고 요구한다. 尤少梅가 이 사실을 알리자 顏秀는 錢萬選에게 자신을 가장하고 대신 가질 것을 부탁한다. 錢萬選은 처음에 거절하지만 顏秀와 그의 모친의 간청을 뿌리치기 못해 高贊의 집으로 가고, 高贊은 그의 재주와 인품을 보고 즉석에서 결혼을 허락한다. 혼인날이 다가오자 高贊은 신랑이 직접 와서 신부를 맞아가라고 요구하고, 顏秀는 어쩔 수 없어 다시 錢萬選에게 대신 갈 것을 강권한다. 신부를 맞으러 간 배가 동정산에 도달한 뒤, 玉皇上帝의 명을 받은 風姨와 雷神이 풍랑을 일으키고 큰 눈을 내리게 하여 배는 淞城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高贊은 길일을 놓칠까 두려워 錢萬選에게 妻男 金木謙의 건의에 따라 자신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자고 하고, 그의 요구를 꺾지 못한 錢萬選은 먼저 顏小乙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힌 뒤 혼례를 치르지만, 동방에 들어가서 高白英과 동침은 하지 않는다. 삼일 후 풍랑이 멎고 신부를 맞이하려 간 배는 돌아간다. 먼저 돌아온 顏小乙에게서 이 일을 들은 顏秀는 배가 닿자마자 화가 나 錢萬選을 때리고, 高贊이 이를 보고는 분규가 일어난다. 마침 제방 수리를 위해 실사를 나왔던 현령 管六飛에게 가서 서로 고소하고, 현령은 연유를 물은 뒤, 산파를 보내 高白英이 아직 처녀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錢萬選의 굳센

의지를 높이 사고 또 高贊의 요구에 따라 高白英을 錢萬選에게 시집보내라고 판결하며, 尤少梅에게는 杖刑을 내려 징계한다. 이때 사람이 와서 錢萬選이 學院科擧에 일등을 했다고 알린다. 그래서 錢萬選은 현령과 고씨 집안 사람과 작별을 하고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난다. 후에 錢萬選은 연속하여 장원을 하고, 또 顏秀를 위해 洞庭山巡簡의 벼슬을 구해 준다. 錢萬選이 금의환향하는 날, 顏秀의 모친은 한 마음으로 錢萬選을 사모하던 의녀 黃小正을 데리고 고씨 집에 가서 간청하고, 高白英은 흔쾌히 그녀를 첩으로 맞아들이기를 승낙하여 대단원으로 막을 내린다.

2. 主題

본 극에서 표현한 것은 錢萬選과 高白英이 곡절 끝에 부부가 되는 이야기로, 근거로 한 당시의 전래 다니던 이야기 자체에도 원래 곡절과 우연한 요소가 많았는데, 작자는 몇 가지 이야기를 첨가하여 因果應報와 天定思想을 강조해서, 이 우연과 곡절들을 모두 하늘의 안배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錢萬選의 혼인과 그가 공명을 취득하는 것이다. 즉 하나는 風姨·河伯·雷神 등이 玉皇上帝의 명을 받아 풍랑을 일으켜, 신부를 맞이하려 갔던 배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혼례를 高贊의 집에서 치르게 하는 것으로, 옥황상제가 風姨에게 명을 내려 풍랑을 일으켜 큰 눈을 내리게 할 때 風姨가 말하기를 「송성의 안수가 미색을 보고는, 속여서 결혼하려는 것을 보았다. 만약 이번 바람이 그의 결혼식을 저지한다면, 비록 마침 그 기회를 만났어도 하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고,⁸⁾ 河伯도 명을 받들어 풍랑을 일으키고 눈을 열리면서 말하기를 「단지 그 송성 顏秀의 신부를 맞는 배가 어떻게 지날 수 있는가? 이 또한 그의 비열한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그것을 언급할 필요도 없지.」라고 하였으며,⁹⁾ 이 때문에 錢萬選과 高白英이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또 현령 管六飛가 안을 판결할 때도 「풍백이 중매를 썼고, 하늘이 합하게 해주어 좋은 남자가 훌륭한 부인을 배우자로 맞아 모두 합당하게 되었다. 처를 구하고자 한 사람은 결국 처가 없으니 스스로 저지른 죄업이다.」라고 하였는데,¹⁰⁾ 顏秀는 자업자득으로 부인과 혼수를 모두 잃게 된 것이다. 그리고 錢萬選이 과거에 급제하여 공명을 얻는 부분은 모두 文昌帝君과 관계가 있는데, 즉 元旦에 문창제군이 송

8) 第 21 齣 〈玉旨〉: 「見崧城顏秀他, 關人美色, 局騙成婚, 若此番風信把他佳期阻斷, 雖則適逢其會, 也算天不相容了。」

9) 第 25 齣 〈降雲〉: 「只是那崧城顏秀娶親的船兒, 怎生過渡, 這也是其短行所致, 不必提他。」

10) 第 31 齣 〈于歸〉: 「風伯爲媒, 天公作合, 佳男獲配佳婦, 兩得其宜, 求妻到底無妻, 自作之孽。」

성을 지나다가 錢萬選이 뜻을 세우고 열심히 독서하는 것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 「아! 전생이 이렇게 각고하여 공부를 하다니, 그러나 아깝게도 그의 운명 중에 작은 시험에는 유리하나 과거에는 불리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근면하게 공부하는데 향시이라도 볼도록 천거하지 않으면, 어찌 선비들을 권할 수 있겠나?」라고 하고¹¹⁾ 그를 鄉試 일등에 천거하며, 또 第 13齣 〈拒色〉에서 錢萬選이 黃小正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문창제군 좌하의 두 仙童이 보고는 이 사실을 문창제군에게 알리며, 게다가 錢萬選은 高白英과 이틀이나 합방했으나 같이 잠을 자지는 않는 등, 그의 이러한 각고해서 공부하고 절조가 굳은 점 때문에 문창제군의 눈에 들게 되었다. 그래서 第 34齣 〈預夢〉 중에서 문창제군이 「송성의 전만선이 청빈한 뜻으로 힘써 분발하고, 곤궁해도 절조를 견지하며, 문을 닫고 과부를 거절한 노의 남자를 처음에는 배우더니, 계속하여 가슴에 여자를 품고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유하혜의 행위를 한 것을 보아서, 그의 운명이 비록 영달하지는 않지만 사람됨은 죽히 현양할 만하기에, 옥황상제께 상주하여 그를 하늘의 방에 올리고 계속하여 높이 급제하게 하며 특별히 장원을 내린다.」고 말하고,¹²⁾ 과연 錢萬選이 연속해 장원을 하게 되는데, 작자의 이런 안내는 사람의 운명이 비록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만약 뜻을 세워 스스로를 아끼고 노력하며 착한 일을 하면 하늘 역시 도와서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로써 사람들을 勸戒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第 36齣 〈畫錦〉에서 말한 「사람이 자신의 힘을 다 할 때,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아름답다고 불리는 것은 부끄럽고, 곡의 가사는 또 울발라서 방탕함을 바로 잡아야 한다.」에서도 알 수 있다.¹³⁾ 이밖에도 錢萬選이 장원급제한 후, 전의 원한을 생각하지 않고 외사촌형인 顏秀에게 洞庭山巡簡의 벼슬을 얻게 해주고, 顏秀도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이러한 사상의 한 표현이다. 이상으로 볼 때 본 극의 주제는 因果應報 및 天定思想을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노력하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勸善懲惡의 사상을 發揚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出典

- 11) 第 2齣 〈暗祐〉: 「呀! 錢生恁般苦功, 只是可惜他命中利於小試, 不利於科場, 怎生是好? 如此勸讀, 不一薦鄉書, 何以勸士?」
 12) 「因見涖城錢萬選, 苦奮蓬壺之志, 堅持冰蘗之操, 始學閉戶魯男, 繼作坐懷柳下, 命雖不達, 人足以風, 奏過玉皇, 將他擯上天榜, 聯登高第, 特賜狀頭.」
 13) 【紅練鞋】: 「盡人時, 感穹蒼」, 【意不盡】: 「羞稱鮑治, 詞還正雅規放蕩」.

본 극은 작자의 고향 吳江에서 萬曆 초에 일어났던 기이한 이야기를 개편한 것으로, 顏秀가 望湖亭에서 신부를 맞이하려 간 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또 현령이 望湖亭에서 안건을 판결하는 내용을 집어넣어 《望湖亭記》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馮夢龍의 《情史》 卷二(吳江錢生), 《醒世恒言》 第七卷〈錢秀才錯占鳳凰傳〉 14) 역시 이 일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비교하여 보면, 15) 〈吳江錢生〉은 간략하여 아마도 원래 전문의 기록일 것이고, 〈錢秀才錯占鳳凰傳〉는 이 奇聞을 부연하여 話本小說로 만든 것이며, 본 극은 이 화본에 의거해 다시 傳奇로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극중의 많은 부분이 화본과 같기 때문이다. 16)

전체적으로 말하면 〈錢秀才錯占鳳凰傳〉와 《望湖亭記》의 줄거리는 대체로 같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작자가 극을 만들 때 文昌帝君·風姨·雷神·河伯 등 몇 명의 신을 첨가하여, 원 이야기 중의 우연한 요소들을 모두 하늘의 안배로 바꾸어서 극중에 인과응보 및 天定思想이 충만하게 되었고, 이로써 또한 무대 장면 역시 화려하고 성대하게 되었다. 또 작자는 錢萬選이 뜻을 세워 열심히 공부하여 공명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여색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몇 齣의 내용을 첨가하여, 그의 학업에 노력하는 것과 고상한 절조를 강조하였으며, 이 일들을 또 모두 문창제군이 알게되고, 옥황상제께 아뢰어 그의 운명을 바꾸어 연속 장원을 하게 하여 그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전기의 대단원으로 막을 내리는 俗套를 만족시키는 외에도, 작자가 이를 빌어 사람들에게 뜻을 세워 선을 행하라고 勉勵하고자 하는 뜻도 있는 것이다.

세세한 부분으로는 작자는 현령과 錢萬選의 관계도 바꾸었다. 다른 두 작품에서는 분규가 발생한 후 현령이 안을 판결만 하는데, 본 극에서는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푸는 管六飛라는 인물을 만들어, 錢萬選의 재주를 아끼어 우선 顏秀의 집에 가정교사로 추천해 생활을 도와주고, 자주 그를 불러 격려하여주며, 판결을 내린 후 學院科擧의 결과가 나와 錢萬選이 일등을 하자 서울로 과거를 보러가게 여비를 보태주고 전송하는 등, 이는 아마도 작자가 극을 지으며 자신의 마음속의 이상적인 지방관리의

14) 《今古奇觀》 第 27卷에도 수록되어 있다.

15) 이 세 가지의 중요 인물의 이름을 《情史》·《恒世醒言》·《望湖亭記》 순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錢生/ 錢青, 字 萬選/ 錢萬選, 字 子青; 顏生/ 顏俊, 字 伯雅/ 顏秀, 字 伯雅; 高翁/ 高贊, 妻 金氏/ 高贊, 妻 金氏; 高翁女/ 高秋芳/ 高白英; 중매인 이름 없음/ 尤辰, 號 少梅/ 尤玉成, 別號 少梅; 縣官/ 本縣 大尹/ 縣令 管六飛.

16) 주 11)은 현령의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한 것인데, 〈錢秀才錯占鳳凰傳〉와 《望湖亭記》를 비교하여 보면, 人名만 조금 바뀐 것 외에는 판결문이 완전히 같아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모습을 만들어 낸 것일 것이다. 또 다른 두 작품에서는 顔秀가 단지 소문만 듣고 중매를 부탁하지만, 본 극에서는 尤少梅의 초청으로 洞庭山에 놀러 갔다가 妙香菴에 향을 올리러 온 高白英의 미모를 보고 반해서, 尤少梅에게 그녀의 신세를 알아보고 중매를 서 달라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이로써 극의 내용을 더욱 곡절 있게 하고 쉽게 부연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작자는 黃小正이라는 한 인물을 만들었는데, 그녀는 錢萬選 이모의 수양딸로 錢萬選의 풍채를 보고 마음이 기울어 그의 방에 가서 유혹하나 거절당하고, 후에 첩으리라도 錢萬選을 모시겠다고 고집하여, 顔秀의 모친이 高白英에게 말해서 허락을 받는다. 이는 작자가 錢萬選의 질조를 강조하고, 關目的의 다양화를 위해 만든 것 같으나 극의 전개상 그다지 긴요하지 않다. 오히려 몇 齣의 극 중에서 顔秀와 함께 등장하여 顔秀의 경박함과 초조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 인물이 성공한 부분이다. 그리고 작자는 錢萬選이 과거에 장원급제 한 후 顔秀에게 벼슬을 마련해주고, 또 顔秀도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내용을 첨가하였는데, 이것은 大團圓으로 막을 내리려는 것 외에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제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

4. 劇中 主要 人物

본 극중의 중요한 인물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錢萬選: 생이 담당하며, 본 극의 남자 주인공이다. 涪城 사람으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玄眞觀에 머물며 과거 준비를 하는데, 인품과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며, 또 열심히 노력하는 인물이다. 현령의 추천으로 외사촌형 顔秀의 집에서 가정교사를 한다. 후에 顔秀의 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를 가장하여 高贊의 집에 선을 보러가서 응낙을 받아낸다. 후에 高贊이 신랑이 직접 신부를 맞으러 오라고 요구하자, 顔秀의 간청에 다시 그를 가장하고 高贊의 집으로 가지만, 그 때 날씨가 돌변하여 신부를 맞이하려 간 배가 돌아가지 못한다. 길일을 놓칠까 걱정한 高贊은 자기 집에서 혼례를 치르자고 요구한다. 그는 재삼 거절하지만 高贊의 요구를 꺾지 못하고, 혼례를 치른 후 신방에 들어가나 이틀 동안 高白英과 동침은 하지 않는다. 삼일 후 풍량이 멎고, 신부를 맞이하려 갔던 배는 高贊 일가와 함께 望湖亭으로 돌아온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먼저 돌아온 顔小乙에게 전말을 들은 顔秀에게 매를 맞고, 이를 본 高贊과 싸움이 일어나, 望湖亭으로 가서 독 수리 실사를 위해 온 현령 管六飛에게 고소한다. 현령은 연유를 들은 후 산파를 보내 高白英이 아직 처녀인 것을 확인하고, 그녀

를 그에게 시집가도록 판결한다. 이때 學院科擧 결과가 나왔는데, 그가 일등을 하여 사람들과 작별하고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난다. 후에 文昌帝君의 도움을 받아 연속 장원을 하며, 그는 옛 원한을 생각하지 않고, 顔秀에게 洞庭山巡簡이라는 벼슬을 마련해 준다. 금의환향하던 날 그를 사모하던 黃小正을 또 첩으로 맞아들인다. 작자가 묘사한 錢萬選은 학문이 깊고 절개와 지조를 지닌 才士의 전형적인 인물로, 작자는 그의 신분을 높여주기 위하여 前朝 武肅王의 자손이라는 가세를 만들어 주어 俗套를 벗어나지 못했다.

2) 高白英: 묘이 담당하며, 본 극의 여주인공이다. 洞庭山 富商 高贊의 딸로 아름답고 현숙하며, 시문에 능한 전형적인 才女이다. 후에 극절 끝에 錢萬選과 결혼한다. 그리고 顔秀의 모친이 黃小正을 데리고 와서 사정하자 즉시 첩으로 받아들일 것을 허락하는데, 이로부터 그녀의 현숙함과 도량이 넓음을 알 수 있다.

3) 顔秀: 淨이 담당하며, 본 극의 남자 副主人公이다. 그는 錢萬選의 외사촌형으로 일찍이 부친을 잃었지만 모친이 근검하여 가산이 풍부하다. 그는 용모가 추하고 학식이 없으며, 단지 치장하기만 좋아하고 미녀를 쳐로 맞아들이는 몽상만 한다. 洞庭山 妙香菴에 놀러 갔다가 高白英의 미모를 보고 넋이 나가, 자신의 추한 모습은 생각하지도 않고 尤少梅에게 그녀와 중매를 서달라고 한다. 高贊의 요구를 들은 뒤 錢萬選에게 자신을 가장하고 대신 가서 선을 보라고 간청하여 성사된 후, 또 高贊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직접 오라고 하자 다시 錢萬選에게 이 일을 부탁한다. 신부를 맞이하러 간 배가 동정산에 도착한 후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 돌아오지 못하자, 그는 望湖亭에서 찬바람과 큰 눈을 무릅쓰고 애타게 기다린다. 삼일 후 배가 돌아오고 錢萬選이 혼례를 치르고 신방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나서 錢萬選을 때리고, 이 때문에 망호정으로 가서 현령에게 고소한다. 후에 高白英이 아직 처녀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는 후회하며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현령은 그녀를 錢萬選과 맺어준다. 후에 錢萬選의 도움으로 洞庭山巡簡 벼슬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회극으로 극이 끝난다. 작자는 〈奇遇〉·〈自嗟〉·〈盼棹〉·〈踏雪〉 등 몇 齣의 극에서 그의 경박한 형상을 우스꽝스럽고도 생생하게 잘 묘사하였다.

4) 高贊: 外가 담당하며, 高白英의 부친이다. 그는 洞庭山의 부자로 딸의 才貌 때문에 중매가 끊이지 않자, 자신이 사윗감을 직접 본 후 마음에 들어야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조건을 내건다. 그는 顔秀를 가장하고 온 錢萬選의 인품과 才學을 보고 만족하여 즉석에서 결혼을 승낙한다. 후에 자신의 사위의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기 위하여, 신랑이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오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錢萬選은 다시 顔秀를

가장하여 가지만 풍량이 크게 일어 돌아가지 못한다. 길일을 놓칠까 걱정이 된 그는, 처남인 金木謙의 건의에 따라 錢萬選에게 자신의 집에서 혼례를 올릴 것을 요구하고, 후에 신부를 맞이하려 간 배를 따라 望湖亭으로 와서, 자신의 사위가 한 사내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현령에게 고소한다. 진상이 밝혀진 후, 현령이 그의 뜻을 묻자 그는 錢萬選을 사위로 맞겠다고 한다. 본 극에서 그의 형상은 대체로 〈錢秀才錯占鳳凰儔〉에서의 형상과 같다.

5) 尤少梅: 末이 담당하며, 顏秀에게서 자분을 빌어 滋城에서 청교상을 한다. 顏秀의 부탁을 받고 그의 마음에 든 미녀가 高贊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내고는 상관하지 않으려 했으나, 금전의 유혹에 중매를 선다. 분규가 발생한 후, 현령은 그가 오가며 선동하여 분쟁의 발단을 일으킨 죄를 물어 곤장 20대의 판결을 내려 징벌한다. 그의 형상 역시 〈錢秀才錯占鳳凰儔〉와 대체로 같으나, 작자가 그가 顏秀에게 동정산으로 놀러 가자고 하여 顏秀가 高白英의 미모를 보고 마음이 끌린다는 줄거리를 넣어 본 극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의 하나가 된다.

6) 文昌帝君·風姨: 각 末과 小旦이 담당하며, 문창제군은 錢萬選이 과거를 보아 공명을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錢萬選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그를 도와주고, 또 錢萬選이 여색에 움직이지 않는 몸가짐을 알고는 더욱 감동하여, 옥황상제께 상주해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연속 장원을 하도록 하여 그의 의지에 대해 상을 내린다. 風姨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풍량을 일으켜 錢萬選의 혼인을 도와준다. 이들과 雷神(副末)·河伯(淨) 등 몇 명의 신의 운용은 본 극중에 인과응보와 천정사상을 충만하게 하며, 또 무대 장면을 화려하고 성대하며 기이하게 만들고, 극중의 내용에 변화를 주어 단조롭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7) 黃小正: 小旦이 담당하며, 顏秀 모친의 수양딸로 늘 顏秀가 용모가 추함에도 치장하기 좋아하는 것을 비웃는다. 錢萬選의 풍채를 보고 반하여 그를 유혹하나 거절당한다. 후에 錢萬選의 시첩이 된다.

8) 管六飛: 小生이 담당하며, 滋城 현령으로 백성을 위하여 늘 애쓰는 청렴한 관리이다. 그는 錢萬選의 재주를 어여뻐 여겨 늘 그를 도와준다. 望湖亭에서 高白英을 錢萬選에게 시집가도록 판결하여 그들이 결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밖에 顏小乙(小生)과 翠兒(小丑)는 각각 顏秀 집의 종과 高白英의 몸종으로 우스운 자태로 나타나며 극중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다. 본 극에서 사용한 角色은 生·小生·旦·小旦·貼旦·老旦·外·末·副末·淨·丑·小丑 12角色과 기타로 각색의 운용에 있어서 「수고스러움과 편안함이 균등한(均勞逸)」¹⁷⁾ 정도에 이르지

못했는데, 많은 齣 중에서 등장하지 않는 각색이 많아도 한 각색이 두 종류의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상황이 있으며,¹⁸⁾ 특히 第 23齣에서는 12角色과 기타로 20여종의 다른 인물을 연기하고, 또 한 각색이 퇴장하지 않고 다시 등장하여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상황이 심한데, 이는 아마도 일반적인 하나의 “戲班”이 감당하기는 힘든 것일 것이다. 작자도 이를 알았음인지 극중에 末이 분장한 尤少梅가 우스갯소리로 「만약 각색이 적으면, 저도 이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¹⁹⁾ 그렇지만 이러한 각색의 운용은 본 극의 하나의 결점일 수밖에 없다.

Ⅲ. 劇作 技巧 研究

1. 結構

우선 각 척의 간략한 내용과 사용한 套數 및 韻目을 정리하여, 關目을 어떻게 배치하였고, 換宮換韻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그리고 齣目은 본 극본 앞 부분에 제시된 것을 사용한다.

第 1齣 〈敘略〉: 末이 개장하며, 전극을 총괄하여 관중에게 알려준다.

第 2齣 〈暗祐〉: 원단에 錢萬選이 玄眞觀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文昌帝君이 지나다가 이를 보고 감동하여 도와주려 생각한다. (仙呂宮: 蕭豪韻)

第 3齣 〈辭媒〉: 高贊의 딸 白英이 才貌가 출중하여 늘 매파들이 와서 중매를 선다. 이에 高贊은 자신이 직접 사윗감을 보고 마음에 들어야 결혼을 허락한다고 조건을 세운다. (商調, 雙調: 東鍾韻, 家麻韻)

第 4齣 〈懷甥〉: 顏秀는 집은 부유하지만 공부를 하려들지 않는다. 顏秀의 모친은 錢萬選이 생각나 顏小乙에게 그를 불러오라고 하고, 그때 현령 管六飛 역시 錢萬選을 불러오게 한다. (雙調: 江陽韻)

第 5齣 〈憐才〉: 錢萬選은 현령 管六飛를 찾아가고, 管六飛는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顏秀의 집에 가정교사로 추천해 그의 생활을 도와주려고 한다. (正宮: 庚青韻)

17) 王季烈 《嬾廬曲談》(商務印書館, 1971) 卷二 26-28 쪽 참조.

18) 角色의 상세한 운용 상황은 拙 前稿論文 401-402 쪽 참조.

19) 第 23齣 〈迎親〉: 「若是脚色少, 學生也在裡頭.」

20) 여기서 사용한 韻書는 周德清 《中原音韻》(橋家駱主編 《歷代詩史長編二輯》 第 1冊, 鼎文書局, 1974)이다.

第 6 齣 〈赴館〉: 顔秀는 빗을 갠으러 온 尤少梅에게 중매를 부탁한다. 錢萬選은 안씨 집에 와 사숙을 맡고, 黃小正은 그의 풍채를 보고 사모하게 된다. (南呂宮, 雙調: 蕭豪韻, 皆來韻)

第 7 齣 〈女學〉: 金木謙은 조카딸 白英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후에 妙香菴 비구니가 와서 白英에게 사월 초파일날 향을 올리러 오라고 청한다. (北仙呂宮: 齊微韻)

第 8 齣 〈泛景〉: 尤少梅는 顔秀에게 洞庭山으로 놀러가자고 하고, 顔秀는 또 錢萬選도 불러 함께 간다. (南呂宮, 雙調: 魚模韻, 尤侯韻)

第 9 齣 〈奇遇〉: 錢萬選 등이 妙香菴에 놀러 갔을 때, 顔秀는 향을 올리러 온 高白英을 보고 닢이 나가서 尤少梅에게 중매를 부탁한다. (黃鍾宮, 雙調: 皆來韻, 先天韻)

第 10 齣 〈自嗟〉: 尤少梅에게서 소식어 없자 顔秀는 顔小乙을 보내 알아보게 하여 高贊의 조건을 알게된다. 顔秀는 혼자 거울을 보며 상심하지만, 다시 顔小乙을 보내 尤少梅에게 후한 상금을 걸어 이 일을 성사시켜 달라고 한다. (南呂宮: 齊微韻, 歌戈韻)

第 11 齣 〈作伐〉: 尤少梅는 顔小乙을 데리고 高贊의 집으로 가서 중매를 선다. (南呂宮: 寒山韻)

第 12 齣 〈裝婿〉: 顔秀는 錢萬選에게 대신 선을 보러 가라고 하고, 錢萬選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다가, 顔秀 모친의 간청에 하는 수 없이 승낙한다. (中呂宮, 雙調: 庚青韻, 監咸韻, 車遮韻)

第 13 齣 〈拒色〉: 黃小正은 차를 갖다준다는 핑계로 錢萬選의 서재에 가서 그를 유혹하나 거절당하고 이 일을 文昌帝君의 두 仙童이 목격한다. (南呂宮: 蕭豪韻)

第 14 齣 〈題詩〉: 錢萬選은 顔秀를 가장하고 선을 보러 가고, 高贊은 그의 인품과 才貌를 보고 마음에 들어 즉석에서 결혼을 승낙하고, '並頭蓮'시를 짓게 한다. (越調, 南呂宮: 東鍾韻, 眞文韻)

第 15 齣 〈和韻〉: 高白英은 錢萬選의 재모에 마음이 끌리고, 翠兒의 재촉 하에 '並頭蓮'시를 화답한다. (仙呂宮: 支思韻)

第 16 齣 〈發盤〉: 顔秀는 바쁘게 혼수를 준비한다. (北般涉調: 庚青韻)

第 17 齣 〈納聘〉: 안씨 집에서는 혼수를 고씨 집으로 보내고, 고씨 집에서는 사주 단자를 보낸다. (雙調, 南呂宮: 東鍾韻, 桓歡韻)

第 18 齣 〈延賓〉: 사주단자를 받은 顔秀는 기뻐서 錢萬選과 尤少梅를 불러 술을

마신다. (南呂宮: 尤侯韻, 眞文韻)

第 19 齣 〈踏勘〉: 管六飛는 수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을 수리하려고 실제 조사에 나서기로 한다. (正宮: 蕭豪韻)

第 20 齣 〈導日〉: 안씨 집에서 택일하여 고씨 집으로 보내자, 高贊은 신랑이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올 것을 요구한다. (南呂宮, 仙呂宮: 侵尋韻, 齊微韻)

第 21 齣 〈玉旨〉: 玉皇上帝는 風姨에게 14일부터 삼일간 큰 풍랑을 일으키라고 명을 내린다. (越調: 東鍾韻, 齊微韻, 車遮韻)

第 22 齣 〈再倩〉: 顏秀는 高贊의 요구를 들은 후 다시 錢萬選에게 대신 신부를 맞이하러 갈 것을 강요한다. (仙呂宮, 黃鍾宮: 家麻韻, 江陽韻)

第 23 齣 〈迎親〉: 錢萬選은 또 고씨 집으로 신부를 맞이하러 갔는데, 풍랑이 심해져서 돌아오지 못한다. (南呂宮, 中呂宮: 歌戈韻, 魚模韻, 監咸韻, 眞文韻)

第 24 齣: 없음.

第 25 齣 〈降雪〉: 눈보라가 몰아쳐서 배가 출발을 하지 못하자, 길일을 놓칠 것을 두려워한 高贊은 金木謙의 건의에 따라 錢萬選에게 그의 집에서 혼례를 치를 것을 요구한다. (中呂宮: 廉纖韻)

第 26 齣 〈盼棹〉: 顏秀는 눈보라를 무릅쓰고 望湖亭에 가서 배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린다. (南呂宮: 齊微韻)

第 27 齣 〈合盃〉: 錢萬選과 高白英은 혼례를 치르고, 신방에 들어간 후 마주앉아 밤을 새운다. (仙呂宮, 雙調南北合套: 先天韻, 尤侯韻)

第 28 齣 〈踏雪〉: 顏秀는 望湖亭으로 배가 돌아오나 살피러 오고, 현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두 이장도 望湖亭을 정리하러 온다. (南呂宮, 商調: 蕭豪韻, 皆來韻)

第 29 齣 〈達旦〉: 이튿날 밤 錢萬選과 高白英은 모두 옷을 입은 채 자고, 顏小乙은 몰래 와 살펴보고 錢萬選의 의지가 굳은 것을 안다. (商調: 皆來韻, 齊微韻)

第 30 齣 〈激怒〉: 날씨가 풀려 신부를 맞으러 갔던 배는 돌아온다. 顏小乙이 먼저 돌아와 顏秀에게 사실을 알리자, 顏秀는 화가 나서 배에서 내린 錢萬選을 때리고, 高贊이 이를 보고 싸움이 붙는다. 이에 모두 望湖亭에 가서 현령에게 고소하려고 한다. (中呂宮: 桓歡韻)

第 31 齣 〈于歸〉: 현령이 심문한 후 高白英을 錢萬選에게 시집가라고 판결한다. 이때 學院科擧의 결과가 나오고, 錢萬選은 현령과 작별하고 과거보러 떠난다. (雙調, 大石調: 庚青韻, 眞文韻)

第 32 齣 〈長程〉: 錢萬選은 나귀를 빌려 경사로 가고, 고씨 집에서는 高壽를 보

내 시중들게 한다. (雙調: 庚青韻, 江陽韻)

第 33齣〈報喜〉: 錢萬選은 과거에 급제하고, 高壽를 보내 편지를 전하기를 직접 長安으로 會試에 참가하러 가며, 顏秀에게 長安에서 만나자고 한다. (雙調: 魚模韻, 庚青韻, 先天韻)

第 34齣〈預夢〉: 文昌帝君이 꿈에서 錢萬選을 불러 制策을 주고, 玉皇上帝는 그에게 장원을 하사한다. (正宮, 黃鍾宮: 齊微韻, 東鍾韻)

第 35齣〈嗜酒〉: 錢萬選은 연속하여 장원을 하고, 顏秀를 도와 洞庭山巡簡 벼슬을 구해준다. 高贊은 顏秀를 집으로 초청하여 술을 마신다. (正宮: 尤侯韻)

第 36齣〈畫錦〉: 錢萬選은 금의환향하고, 顏秀의 모친이 黃小正을 위해 사정하여 高白英은 그녀를 錢萬選의 첩으로 삼기를 동의하며, 대단원으로 막을 내린다. (南呂宮, 中呂宮: 家麻韻, 江陽韻)

본 극은 傳奇의 일반 通例에 따라 上·下 두 권으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結構를 살펴보면 본 극은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第 2齣에서 第 6齣까지는 發端部分으로, 극중의 주요인물이 모두 여기서 등장하고, 이후 줄거리 전개는 복선이 이곳에 깔려 있는데, 즉 〈暗祐〉는 후에 錢萬選이 공명을 얻게 되는 복선이고, 〈辭媒〉는 錢萬選이 顏秀를 가장해 선을 보러 가는 사건의 복선이다. 第 7齣에서 第 18齣은 본 극의 展開部分으로, 顏秀가 동정산에 놀러 갔다가 高白英을 보고 반하여 尤少梅에게 그녀를 중매사달라고 부탁하고, 高贊의 요구를 들은 顏秀는 錢萬選에게 자신을 가장해 선을 보러 가라고 요구하며, 이야기는 〈題詩〉에 이르러 본 극의 하나의 고조를 이룬다. 高贊이 결혼을 허락한 후 顏秀는 기뻐서 결혼 준비를 한다. 第 19齣에서 第 31齣은 본 극의 轉換部分으로, 안씨 집은 기쁘게 고씨 집에 기일을 청하나 高贊은 또 신랑이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오라고 요구하고, 顏秀는 다시 錢萬選에게 이 일을 부탁하지만, 배가 닿은 후 풍량이 크게 일고 대설이 내려 돌아가지 못하고, 고씨 집안의 요구에 따라 錢萬選은 高白英과 혼례를 올리고 신방에 들어간다. 풍량이 멎은 후 돌아가자 顏秀는 화가 나서 錢萬選을 때리고, 이에 분규가 발생하게 된다. 〈于歸〉는 본 극 제일의 고조로 현령은 高白英을 錢萬選에게 시집가도록 판결한다. 第 32齣에서 第 36齣은 본 극의 結末部分으로 극의 분위기는 긴장에서 답답해지는데, 錢萬選이 과거를 보러 가서 연속 장원을 하여 금의환향한다는 대단원으로 끝을 맺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본 극의 결구는 조적이 엄밀하며 전후의 맥락이 분명하고, 고조의 처리 역시 함당하여, 무대에서 공연할 때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관중들에게 혼란

을 주지 않아 쉽게 이해하고 공명할 수 있게 한다.

본 극에서 사용한 套數는 南曲은 모두 仙呂宮 5套, 大石調 1套, 正宮 4套, 中呂宮 5套, 南呂宮 13套, 黃鍾宮 3套, 越調 2套, 商調 3套, 雙調 10套이며, 北曲은 仙呂宮 1套, 般涉調 1套이고, 南北合套는 雙調 1套이다. 그중 한 齣 안에 두 개의 套數를 사용한 것은 모두 14齣이 있는데, 즉 극중에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宮調와 韻을 바꾸어 이를 명확하게 하였다. 그리고 第 7齣에서는 南仙呂宮 引子 【小蓬萊】에 北仙呂宮 正曲 【後庭花】를 연결하고, 第 21齣에서는 北仙呂宮 【點絳脣】을 引子로하고 北雙調 【清江引】을 尾聲으로 하여 南越調 集曲 【亭前送別】 두 곡으로 南北聯套를 이루었다.

2. 音律

沈自晉은 吳江派 領袖 沈璟의 조카로 曲律에 精通하며, 또한 그가 重訂한 《南詞新譜》는 많은 曲家들에게 추앙을 받았는데 그에 걸맞게 본 극의 音律은 대단히 정확하다. 그러나 여러 曲譜²¹⁾와 대조한 결과 역시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이를 犯韻·句式·集曲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극의 犯韻 상황은 다음과 같다.

第 2齣: 蕭豪韻. 【八聲甘州】 第 5句는 押韻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錦'(侵尋韻)을 사용했고, 【換頭】 第 6句는 '策'(皆來韻)을 사용하였다.

第 3齣: 家麻韻. 【普賢歌】 第 2首 第 2句는 '麼'(歌戈韻)를 사용하였다.

第 8齣: 尤侯韻. 【夜行船序】 第 3句는 押韻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浮'(魚模韻)을 사용했다.

第 11齣: 寒山韻. 【大勝樂】 第 1句는 押韻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宴'(先天韻)을 사용했다.

第 14齣: 東鍾韻. 【祝英台 換頭】 第 7句에서 '跡'(齊微韻)을 사용하였다.

第 18齣: 尤侯韻. 【節節高】 第 2句는 押韻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浮'(魚模韻)를 사용했다.

第 27齣: 尤侯韻. 【沽美酒兼太平令】 末 第 2句는 '浮'(魚模韻)를 사용하였다.

21) 본 논문에서 사용한 曲譜는 朱權 《太和正音譜》(楊家駱主編 前揭輯, 第 3冊), 沈自晉 前揭 曲譜, 李玉 《北詞廣正譜》(王秋桂主編 《善本戲曲叢刊》, 學生書局, 1987), 徐子室 《九宮正始》(同上), 周祥鈺 等 《九宮大成南北詞宮譜》(同上), 鄭騫의 《北曲新譜》(藝文印書館, 1973)이다.

모두 曲牌數는 8수에 지수는 8자 뿐이다. 그중 세 곳의 尤候韻중 모두 '浮'자를 借韻하였는데, 작자의 소홀인지 아니면 고의인지는 알 수 없다. 그밖에 監咸韻·廉纖韻·侵尋韻·支思韻·齊微韻 등 혼동하기 쉬운 운들은 모두 조금도 혼용하지 않아 그의 韻을 쓰는데 있어서 근엄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句式을 살펴보면, 본 극에서 사용한 曲牌의 句式은 대체로 정확하지만, 여러 曲譜들과 대조하여 보면 잘못 사용하였거나, 다른 곳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第 5齣: 【破陣子】. 第 3句는 7字句인데 여기서는 第 1首에서 “魯邑鳴琴作宰” 6字句로 하였다.

第 9齣: 【江水逃園林】은 第 6句를 빠뜨렸는데, 《南詞新譜》에 의하면 “只少自鷓哥盤旋”이다.

第 24齣: 【行香子】末 第 2句는 3字句로 여기서는 “情脉”라고 하였는데, 마땅히 “情脉脉”으로 하여야 한다.

第 25齣: 【古輪臺】 第 6句는 6字句인데 여기서는 “帶雨飛花欠” 5字句로 되어 있다.

第 27齣: 【沽美酒兼太平令】. 여러 曲譜에 의하면 【太平令】 앞 4句는 “7○7○7○7○”인데 여기서는 단지 두 개의 7字句만 사용하였다.²²⁾

본 극에서 사용한 集曲 역시 대부분 정확하다. 그중 《南詞新譜》에 의하면 曲牌名이 잘못된 것이 셋 있는데 第 3齣 【金井水紅花】의 바른 이름은 【梧蓼金羅】이고, 第 10齣 【太師引犯】은 【太師令】이고, 第 22齣 【皂袍鷺】은 【皂袍罩黃鷺】이다. 그리고 8수의 集曲은 작자가 창작하여 《南詞新譜》에 넣었으며, 그중 第 9齣의 【步步入江水】·【江水逃園林】·【姐姐插嬌枝】·【嬌枝催撥棹】는 《九宮大成南北詞宮譜》 역시 수록하여 작자의 음률에 대한 조예가 깊음을 알 수 있다.

3. 文辭

본 극의 문사는 과도하게 彫琢하지는 않았지만 辭藻의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너무典雅하고 綺麗한 폐단이 없으며, 또한 질박하여 무미건조하지도 않다. 여기서 몇 문장을 예를 들어보면, 第 4齣에서 顏秀가 등장하여 창하기를

22) 「○」는 반드시 押韻을 해야 하는 곳이다.

【쌍권주】 피꼬리는 시끄럽게 울고, 제비는 바빠 다니며, 봄바람은 하늘거리는데, 밤은 춥고 꿈은 기니 어떻게 홀로 견디나? 나로 하여금 생각할 방법이 없게 하네. 또 어느 날이나 즐거운 신방을 차릴까? …… (책을 보는 동작을 한다) 아! 어째서 같은 책인데 또 굵기가 다르고 크기가 다를까? 왜 그런지 내가 생각 좀 해보아지. 【전강】 굵은 글자 몇 줄은 자가 뚜렷한데, 작은 것 몇 쌍은 눈을 가리어 방해하네. (책상을 치며) 아! 지금 알겠다. 붓끝으로 모방한 것인 줄 알았는데, 원래 판을 인쇄하여 전파되는 것이구나. 아! 오늘에야 비로소 책은 인쇄하는 것을 알았다. 어찌 수고스럽게 붓끝을 부지런히 놀릴까? 지금 약간 깨달은 것이 있으니, 정자 앞에 가서 조금 거닐어아지. (【雙勸酒】 鶯喧燕忙, 春風飄蕩, 宵寒夢長, 怎熬孤曠, 好教咱沒計思量, 又何日燕爾新房. …… (看書介) 呀! 怎麼一般的書, 又有粗細不同, 高低兩樣, 却是爲何, 待我想一想. 【前腔】 粗書數行, 字兒疎爽, 蠅頭幾雙, 把眼兒遮障. (拍案介) 阿! 我如今曉得了, 只道是筆尖摹倣, 却元來是印板傳揚. 噯! 今日纔知書是印, 何勞筆底太匆忙. 如今也有些悟頭了, 且到亭前閒步兒.)²³⁾

라고 하였는데, 이로부터 그의 결혼을 바라는 심정과 모친의 강권에 의해 책을 볼 잡았지만,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의 태도를唱과 賓白과 동작을 통해 우스꽝스럽게 잘 묘사하고 있다. 또 第 25齣에서 高贊이 金木謙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눈이 내리는 것을 감상하다가 눈이 더욱 거세 지자 【古輪臺 前腔】을 부르는데

밀리 바라보니 나로 하여금 볼수록 근심이 더하게 하네. 누가 옥 같고 은 같은 눈을 일으켜 공중에서 내던지는가? 뽀뽀하게 뿌리고 가볍게 져는 것이, 한 조각 한 조각 마치 공손대랑이 짐을 잡고 있는 것 같구나. 어떻게 산색이 다시 푸르러지고, 물빛은 점점이 출렁거리며, 삼만경의 맑은 호수에 바람이 고요하여, 배 하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 일찍이 물과 고기 같고 비목어 같은 부부를 맺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건우 직녀가 짝이 되지 못하고 비교조차도 이 일음과 눈이 쌓인 산과 골짜기를 건널 수 없으니, 이 일을 어찌 오래 할 수 있을까? 근심스러운 마음을 거둘 수 없네, 말술을 버려 두고 같이 시름하네. (遙曠, 好教我一望愁兼, 誰闢起玉甲銀鱗, 從空拋閃, 密灑輕霰, 一片片似公孫挾劍, 怎得山色迴青, 水光疊巖, 澄湖三萬頃喜風恬, 一杭涉險, 早掇成魚水鯨鯨, 奈雙星不偶, 飛橋難渡, 氷崖雪壑, 此事怎留淹, 難把愁懷斂, 且拌斗酒共厭厭.)

눈이 심하게 내려 신부를 맞이하러 왔던 배가 돌아가지 못하여 딸의 혼례가 미루어질까 걱정하는 부모의 심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 第 26齣에서 顏秀는 큰 눈을 무릅쓰고 호숫가에 나가 신부를 맞이하러 갔던 배를 기다리며 창하기를

【일강풍】 눈꽃이 날리니 나의 마음을 찢어질 듯 아프게 하네. 호숫가로 걸어가 보려는데 걸음을 옮기기 어렵네. 이 휘 부는 차가운 회오리바람은 어느 곳에 배를 막히게 했

23) 밑줄 친 곳은 襯字·賓白·科介 부분이다.

을까? 보이는 것은 높은 파도 더미, 높은 파도 더미 뿐, 또 층층이 일음이 얼까 두렵네.
(저 동정 두 산은) 일찍이 온통 끝없이 하이며 산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네. (【一江】
雪花飛, 攪得我心間碎, 且走向湖邊觀, 步難移. 這的吼地寒颼, 何處把仙舟滯? 只見高
高簇浪堆, 高高簇浪堆, 又怕層層結水衣, (那洞庭兩山) 早是白茫茫不見個山兒.)

라고 하여 그의 초초한 심경과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鄭振鐸은 본
극과 《翠屏山》에 대해 평하기를

이 두 작품은 모두 빼어나고 절묘하게 쓰였으며, 결구도 극히 깔끔하다. 그리고 곡문
과 빈백이 서로 비추어 흥취가 발생하고, 기세가 왕성하여 생기발랄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앞 한 시대의 작가들에게서 드물게 보이는 것이다. (此二記皆寫得很萬妙, 結構也
極爲精練, 而曲白的互相映照生趣, 莫不虎虎有生氣, 尤爲前一時代作家們所罕見.)²⁴⁾

라고 하여 본 극의 문사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IV. 結語

본 극에 대한 옛 사람들의 평은 전적에 그리 보이지 않으며, 沈自南의 〈菊通樂府
序〉에서는 傳奇 《百寶箱》의 작자 郭彥深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
다.

《망호정기》는 마치 버드나무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아, 실로 현재의 전기의 교량
역할을 한다. (《望湖亭》, 若楊柳因風, 實當今南詞津梁矣.)²⁵⁾

작자는 본 극 마지막 收場詩에서 말하기를

이원에서 와 다시 새로운 곡을 청했는데, 청해서 새로운 곡은 글자마다 정교하다. 단
지 당장에 곡사의 모양이 좋은 것만 고려하지 하필 남겨서 안두의 작품과 경쟁하는가?
(梨園至再請新聲, 請得新聲字字精, 只管當場詞戲好, 何須留典案頭爭.)

라고 하여 이 작품이 단지 읽히기 위한 “案頭”의 작품이 아니라 무대에 상연하기 위
한 “場上”의 작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아울러 “字字精”, “詞戲好”를 강조
하여 문사 상에서 辭藻의 아름다움을 아울러 추구하는 자신의 戲曲觀을 나타내었다.

24) 鄭振鐸 《挿圖本中國文學史》(漢學供應社, 出版年度 未詳) 872쪽.

25) 沈自晉 《黍離續奏》 卷首(盧前 輯校 <欽虹移所刻曲> 下冊, 世界書局, 1967)

즉 音律 상으로는 格律을 준수하고 동시에 曲詞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등²⁶⁾ 吳江·臨川 양파의 장점을 모두 겸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이는 그뿐만 아니라 명말 희곡 작가들의 공통적인 추구 대상이었다.

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본 작품은 각색의 운용 등에서 약간의 하자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結構가 엄밀하고, 音律이 정확하며, 文辭 상으로 辭藻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하나의 성공적인 희곡 작품이며, 그의 戲曲觀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明末 무대 위에서 유행하던 劇目的 散齣을 選集한 《醉怡情》에서 〈自嗟〉·〈題詩〉·〈合窈〉·〈激怒〉·〈于歸〉 5齣을 수록한 것으로부터 본 작품이 나왔을 때 많은 관중들의 호응을 얻어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自嗟〉 1齣은 《綴白裘》와 《集成曲譜》에서도 〈照鏡〉이라고 제목을 바꾸어 수록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상연할 수 있으며, 京劇과 豫劇 중의 《風雪記》도 본 극을 개편한 작품으로²⁷⁾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부연할 것은 〈發盤〉·〈納聘〉·〈延賓〉·〈導日〉·〈迎親〉 등에서 희곡 형식을 통해 明末 吳中(現 江蘇省 吳縣 일대)의 결혼 습속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사회학·민속학의 연구에도 귀중한 역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參考文獻】

- 沈自晉 《望湖亭記》，林侑蒞主編 《全明傳奇》，臺北，天一出版社，1985。
 沈自晉 《南詞新譜》，北京，北京市中國書店，1985。
 周德清 《中原音韻》，楊家駱主編 《歷代詩史長編二輯》，臺北，鼎文書局，1974。
 朱 權 《太和正音譜》，上同。
 李 玉 《北詞廣正譜》，王秋桂主編 《善本戲曲叢刊》，臺北，學生書局，1986。
 徐子室 《九宮正始》，上同。
 菴蕙釣叟 《醉怡情》，上同。
 周祥鈺 等 《九宮大成南北詞宮譜》，上同。
 鄭 騫 《北曲新譜》，臺北，藝文印書館，1963。
 盧 前 《飲虹移所刻曲》，臺北，世界書局，1967。
 馮夢龍 《情史類略》，長沙，岳麓書社，1984。
 馮夢龍 《醒世恒言》，臺北，鼎文書局，1978。

26) 沈自友 〈陶通生小傳〉，沈自晉 上揚曲譜 卷末。

27) 齊森華 等 主編 前揚書，407쪽. 趙景深 前揚論文에 의하면 王傳淞·徐聯奎 등이 〈照鏡〉을 근대까지 공연하였다고 한다.

- 莊一拂 《古典戲曲存目彙考》，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2。
 張棣華 《善本劇曲經眼錄》，臺北，文史哲出版社，1976。
 王季烈 《螭廬曲談》，臺北，商務印書館，1971。
 青木正兒著 王吉蘆譯 《中國近世戲曲史》，臺北，商務印書館，1973。
 鄭振鐸 《插圖本 中國文學史》，臺北，漢學供應社，出版年度未詳。
 齊森華等主編 《中國曲學大辭典》，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7。
 凌景埏《鞠通先生年譜及其著述》，《紅粟記傳奇·南詞韻選》附錄 臺北，北海出版社，1971
 周紹良《吳江沈氏世家》，《文學遺產增刊》12輯，北京，中華書局，1963。
 趙景深《明末曲家沈自晉》，《明清曲談》，上海，古典文學出版社，1957。
 拙文《吳江三沈戲曲之研究》，臺北，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研究所，1990。

【中文提要】

《望湖亭記》是明末戲曲作家沈自晉之三種傳奇之一。依莊一拂《古典戲曲存目彙考》，本劇的現存版本只有玉夏齋傳奇本一種。因此，本研究以《全明傳奇》所收錄之玉夏齋本影印本來進行，分為內容研究與作劇技巧研究兩個部分，探討其戲曲文學的成就。

本劇是據萬曆間作者故鄉吳中之奇事改編而成的，《情史·吳江錢生》與《醒世恒言·錢秀才錯占鳳凰儔》，亦記其事。其主要內容為：「吳江財主顏秀貌陋才薄，偶遊洞庭山，見洞庭高贊之女白英美貌，托尤少梅說媒。高贊欲相女婿，顏秀請表弟錢萬選代往。錢萬選人品秀麗，才學卓拔，在顏秀與顏母的懇求下，不得已冒顏秀前往。高贊見後即席許婚。婚期至，高贊要求新郎前往迎親，顏秀再強求錢萬選擔當其事。迎親船抵達洞庭後，忽風浪大作，不能返吳江。高贊恐誤良辰，要在其家成禮，錢萬善雖推托而不聽，入洞房後不與白英同床。三日後風浪停止，迎親船歸來，顏秀怒打錢萬選，引起糾紛。適縣令巡視至望湖亭，判高白英歸于錢萬選。」

分析的結果，本劇在角色運用上，雖有些瑕疵，但從整體來看，結構嚴密，音律和諧，同時文辭亦顧及辭藻之美，可說是一部成功的在舞臺上可搬演的“上場”之作，也是反映作者的戲曲觀——在音律上，遵守格律，在文辭上，追求辭藻之美，兼顧吳江·臨川兩派之長一的作品。

【主題語】

沈自晉 望湖亭記 吳江派 傳奇